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 이 달의 추천 공연

123

- 1** 명작뮤지컬 릴레이..  
개막작 <웨딩 싱어>  
폐막작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  
제13회 대국국제뮤지컬페스티벌  
(DIMF 2019)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DIMF는 한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중국, 대만 등 총 23개의 뮤지컬 작품과 ‘열린뮤지컬특강’, ‘뮤빛밤(야외 뮤지컬영화 상영회)’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펼쳐진다.

개막작 뮤지컬 ‘웨딩 싱어(영국)’는 신나는 복고풍 디스코 음악과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13회 공연을 편성해 축제 중반까지 그 열기를 이어간다.



토니상 9개 부문 수상의 명작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러시아)’이 폐막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스페인, 프랑스의 두 작품은 모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스페인의 역사 속 가장 유명한 여배우로 손

꼽히는 ‘마리아 칼데로나’의 일생을 담은 ‘라 칼데로나(스페인)’는 치정으로 얼룩진 17세기 왕정의 이야기를 DJ와 함께 힙합으로 풀어내고, ‘이브 몽땅’의 명곡과 삶이 녹아 있는 뮤지컬 ‘이브 몽땅(프랑스)’은 그의 친누나 ‘리디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의 인생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냈다.

중국 뮤지컬 2편은 모두 한·중 합작으로 ‘One Fine Day(대만)’는 불치병을 선고받고 이별을 앞둔 모녀가 삶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이며, 탄탄한 대본과 음악,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제12회 DIMF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한 ‘블루레인(한국)’이 1년간의 재정비를 거쳐 공식초청작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그밖에 DIMF창작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신작 4편과 지역 우수 창작뮤지컬 특별공연으로 <이중섭의 메모리> <만덕>과 스테디셀러 <투란도트>를 11회 선보인다.

6.21-7.8 대구 전역

## 2 제4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영상축제

충무로뮤지컬영화제는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가 주최·주관하는 ‘뮤지컬’ 장르 영화제이다. 지난 2015년 프리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올해 제4회를 맞는 충무로 뮤지컬영화제는 DDP, 명동 등의 서울 중



구의 공공 문화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하던 예년과 달리, 충무아트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7월10일부터 13일까지 영화제의 이름인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주제로 펼쳐지며, ‘영화와 뮤지컬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도전과 미래지향적 영상축제를 추구해 온 ‘충무로뮤지컬영화제’의 5년을 돌아보고, 새 탄생을 준비하는 해로 삼는다는 포부이다.

올해 영화제가 집중 개최되는 충무아트센터는 뮤지컬 제작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

유한, 공공 공연장 최초의 뮤지컬 전문 공연장이다. 2005년 충무아트홀로 시작, 2016년 충무아트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뮤지컬 전문 공연장으로써 최고의 무대시스템과 최적의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의 영화제는 장소를 충무아트센터로 집중하는 대신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등의 세 개 공연장에서 전 편 무료 상영될 예정이다.

6월 20일부터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무로뮤지컬영화제 홈페이지(Chimff.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 2019년 7월 10일(수)~13일(토),  
4일간

장소: 충무아트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

공식사이트: <http://chimff.com>

성격: 뮤지컬 장르 영화 중심, 영상과 공연을 접목한 융복합예술축제

상영 섹션

- 더 쇼 The Show: 세계 각국의 뮤지컬 및 공연 예술 관련 신작 영화 쇼케이스
- 클래식 Classics: 고전 뮤지컬 영화의 복원과 재발견
- 싱얼롱 침프 Sing Along Chimff: 코러스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싱얼롱 상영

- 충무로 리와인드 Chungmuro Rewind : 한국고전영화에 무대공연을 접목한 '충무로' 오마주
- 포럼 엠앤엠 Forum M&M: 영화와 뮤지컬이 만나는 열린 대화와 토론
- 탤런트 엠앤엠 Talent M&M: 멘토와 함께 하는 뮤지컬영화 사전제작지원 작 상영

### 3 “타락의 도시 마하고니! 당신의 욕망이 무엇이든... 금지된 모든 것을 허락한다!” 국립오페라단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직무대리 김수한)이 쿠르트 바일의 오페라 〈마하고니 도시의 번영과 몰락〉(7.11~14,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와의 협업으로 탄생된 이 작품은 원래 성악가 몇 명과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은 노래극(Songspiel)에서 출발했다. 1927년 독일의 바덴바덴 페스티벌에서 작품 중 일부 몇 곡이 우선 연주된 후 1930년 라이프치히 오페라극장에서 정식 오페라로 초연되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극 중 가상의 도시 마하고니가 번영하고 몰락하는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재즈, 래그타임, 카바레 음악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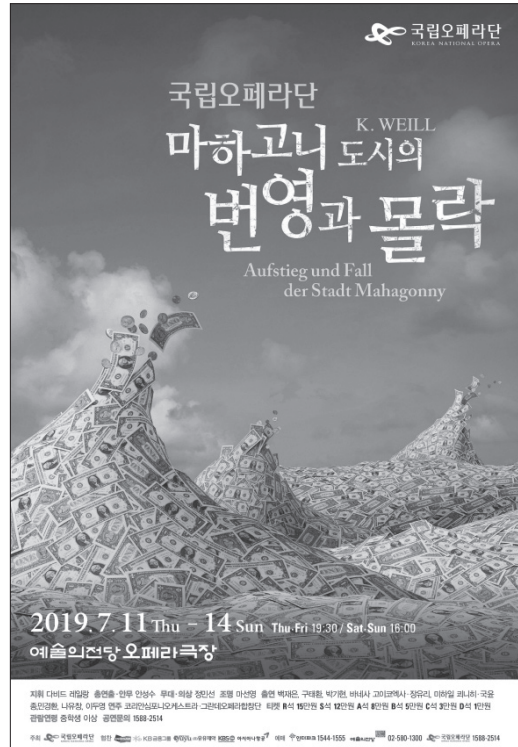
으며 20세기 현대 오페라 혹은 현대 음악극의 걸작으로 꼽힌다. 세계 무대에서는 자주 공연되는 편이나 국내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오페라단은 2019년 야심작으로, 총연출과 안무를 맡는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안성수와 협업하여 오페라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한다. 성악가와 무용단의 움직임을 부각하고 미니멀한 무대와 과장되고 화려한 의상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브레히트의 “소격효과”(Verfremdungseffekt)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다.

2018년 국립오페라단 <코지 판 투테> 지휘를 맡아 호평을 받았던 젊은 마에스트로 다비드 레일랑이 지휘하고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미하일 콰니히, 국윤중, 구태환, 민경환, 소프라노 바네사 고이코엑사, 장유리, 바리톤 박기현, 나유창, 베이스 이

두영 등 정상급 성악가들이 합류한다. 또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그란데오페라합창단이 힘을 모은다.

7.11-14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고시계는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MOVE** 와 문화예술전문매거진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